

“금호타이어 먹튀 안 돼”... 광주시, 공장부지 개발계획 ‘퇴짜’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측이 제출한 '광주 공장부지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반려했다. 금호타이어 측이 제시한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에 공장 이전 대상부지는 물론 이전 계획조차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개발을 통해 금호타이어 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공장의 광주 역내 이전과 고용유지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 담보 없는 개발에 필요한 행정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초 금호타이어 측에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반려했다. '공장 이전 부지는 물론 이전 관련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금호타이어 측에 이전 대상부지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라고 보완

요구했다.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규모는 42만㎡(12만 7000평)다.

반려 통보 이후에도 금호타이어 측은 "광주시가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면 부지 일부를 팔아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전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측이 광주 관내로 공장 이전을 확정 짓고, 고용문제 등 이전 계획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관련 협의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어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회사 측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안긴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혜'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광주지역내 이전·고용유지 등 구체적 이전계획 밝혀라
용도변경 허가 하나로 수천억원 개발이익 '특혜' 될 수도
대주주 중국자본... 공공기여금 등 시민 눈높이 맞춰야

그간 금호타이어 측이 지역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절차 협조 선결 과제로 광주 역내 공장 이전 및 고

용 유지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회사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나아가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계

획 협상 과정에서 금호타이어측이 1000~20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수개월 전부터 세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호남대 상촌캠퍼스 부지를 학교시설(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 아파트 970가구를 짓겠다는 학교법인 성인학원 측과 협의를 거쳐, 학교 측으로부터 현금 205억원을 포함한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확보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광주시 행정행위를 거쳐 부지 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호타이어가 지역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논의가 진척되기 위해서 금호타

이어 광주공장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이러한 입장에는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가 싱웨이코리아(외9인)라는 중국 자본이라는 점에서 선불리 공장 개발을 위한 행정 협조를 해줬다가 고용 축소나 공장 철수 등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지난 8월 말 공장부지 개발계획 검토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개발계획에는 광주공장 인근 환경강화장목습지를 고려한 친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해 기존상권이 활성화되고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 한·아세안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기념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공연'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렸다. 국내 연주자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연주자들이 화합과 평화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아세안 문화장관들 광주서 문화협력 논의

오늘 문화전당서 장관 회의

한·아세안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가 23일 개막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에서 열린다.

24일 특별장관회의에서는 박양우 문화부 장관과 아세안 각국 문화장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협력의 비전을 논의한다. 미래공동체는 지난 201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천명한 신남방정책 비전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25일~26일·부산)보다 한 달 앞서 열려, 한·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상호문화이해, 공동창작,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신남방 정책과제 중 하나인 한·아세안 문화 협력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한국과 아세안 국

가 간 관광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2019 한·아세안 문화관광포럼'이 열렸다.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부대 행사로 23일 저녁 한·아세안 10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회의가 열리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 교류의 창착의 장이자 한·아세안 문화협력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가 끝난 뒤 결과는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방안 논의

靑, 내일 교육관계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남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입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내달 중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앞두고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회의 개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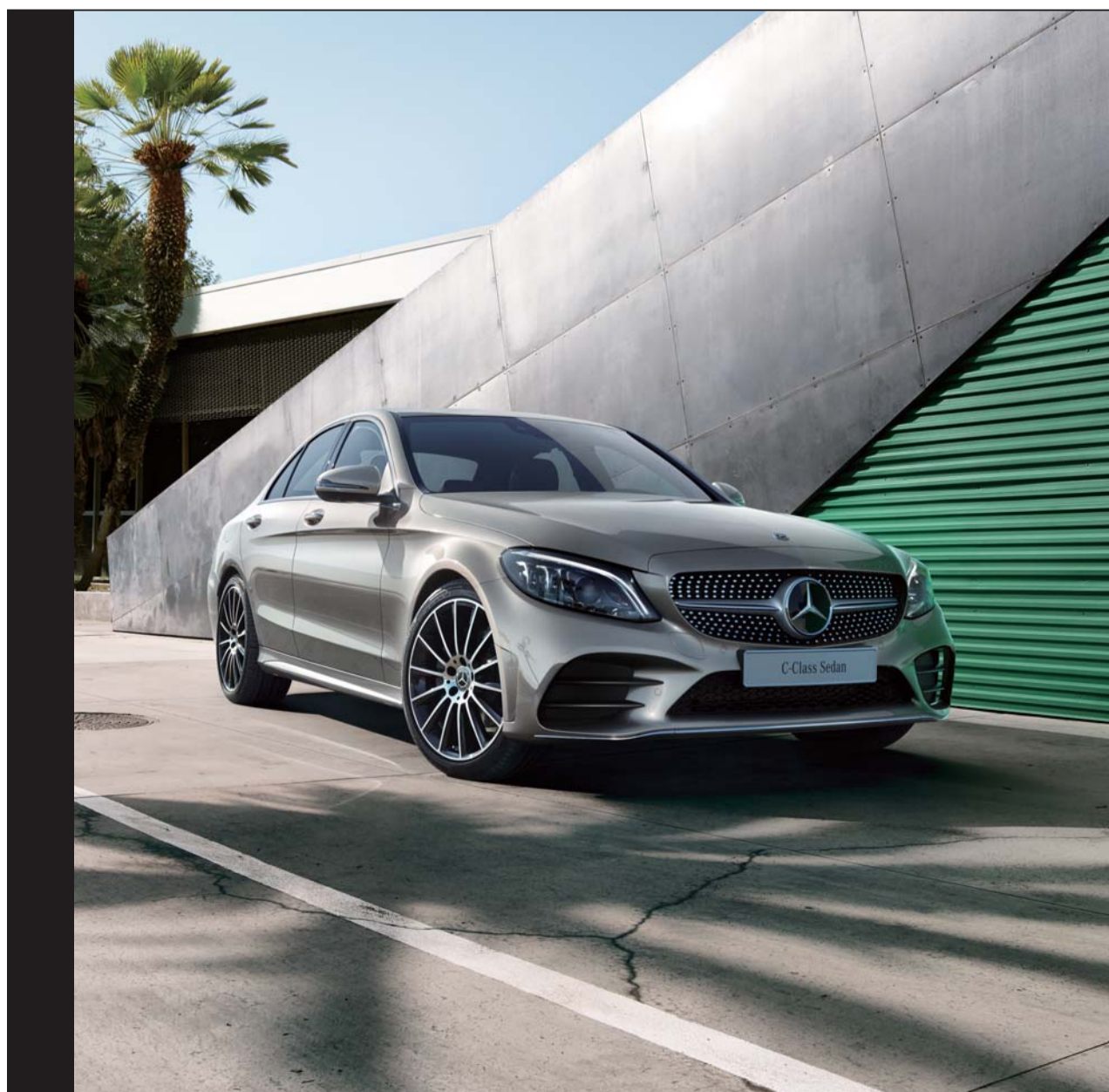
특히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교육계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빠르게 대응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남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학생부 종합전형 보완방안 등도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이 아닌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역사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7면
정찬주 다큐소셜 '광주 아리랑' ▶9면
5월의 진실 찾아서 - 교도소 습격설 ▶10면
손흥민 121호 골... 차범근과 타이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